



정책 동향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총 162억 투입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총 162억원이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3년도 신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총 162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상은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청정에너지개발사업 ▲자원기술개발사업 ▲기술표준화사업 ▲선행연구사업 등 5개 분야로 모두 36개 과제다.

이 가운데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정책이 고효율기기 보급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도입,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정에너지와 자원기술개발사업은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기반기술과 선진국의 전략적 무기화 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기술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화사업과 선행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분야가 이에 해당하며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소나 국·공립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술개발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위험부담 등으로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해당 기자재를 사용현장에 시범 적용, 경제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제 2기 산업체 풀 출범 기념식 개최

과학기술부 지정 우수공학연구센터인 차세대전력연구센터(NPTC)는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제 2기 산업체 풀(POOL)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산업체 풀은 전력계통 분야 주요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NPTC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 풀은 차세대 보호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등 3개의 세부 연구분야를 설정, 전력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보호제어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제 1기 산업체 풀에는 △디이시스 △정보전기 △유성계전 △유호전기 △젤파워 △태광이엔시 △프로콤시스템 △피앤시테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최근 출범한 제 2기 산업체 풀에는 △현대중공업 △인텍전기전자 △영인기술 △에이스기술단 등 4개 업체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로써 산업체 풀 회원사는 총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 선우중호 명지대 총장, 이영철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영한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산자부, 친환경제품 국제표준 지침서 발간

산업자원부는 친환경제품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21(자기선언환경성 주장)의 실무지침서(국·영문)를 발행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APEC 회원국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임

-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는 동 지침서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4월28일에 개최하였음.
- ISO 14021(자기선언 환경성 주장: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문구나 심벌 사용에 관한 국제표준임
- * ISO 14000 시리즈는 제품설계 - 생산 - 최종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환경활동 수행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크게 제품에 대한 환경규격과 조직에 대한 규격으로 나뉨. 제품에 대한 규격으로는 환경선언(ISO 14021), 전과정평가(ISO 14040), 친환경설계(ISO/TR 14062)등이 있으며, 조직에 대한 규격으로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환경감사(ISO 14010)가 있음.

동 규격의 적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과장되거나 입증불가능한 제조자의 친환경성 주장을 규제할 목적으로 관련 법규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산자부 공급전력 표준화 시행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기에 앞서 이들의 공급전력 품질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민영화 전력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고시,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에는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 가정·기업들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 및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전압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에서 유지해야 할 전압·주파수·예비전력의 목표치를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6개 한국전력 자회사가 발전·송전·배전업체로 분할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전력품질 표준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 중유발전소의 경우 정격 용량을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신규 발전기에 대한 성능 허용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전력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는 한편 투자불균형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배전·송전·발전 등 각 업체가 준수해야 할 설비별 안정성 유지기준과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 등 제반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 남궁재영 사무관은 "한국전력이란 울타리에 있던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전압·주파수 등 전력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시행으로 각 업체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KS관련 정보제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개설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standard.go.kr)가 오픈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 이 사이트는 KS는 물론이고 ISO, IEC 등에 대한 규격검색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 현황, 통계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국내 표준화사업이나 ISO, IEC 위원회의 활동 등 국제표준화사업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각국의 인증제도를 검색해 해외수출 때 필요한 각종 인증마크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WTO/TBT 협정문과 협정해설서, 기타 무역상 기술장벽과 관련된 자료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중기청,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제도 도입·시행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부품 및 제품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을 경우 수요처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남은 정도로 구매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 동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배경은

- 지난해에 국방부와 공동으로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국방관련 부품의 기술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한 후, 국방조달시장에서 전량구매를 보장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구매조건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그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전력, 통신분야 및 수출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구매조건부 국방기술개발 품목 현황 : 본회 홈페이지(www.koema.or.kr ⇒ 전기산업동향) 참조
(기술개발비 중소기업청지원 : 19억원, 사업화 성공시 국방부 구매예정 : 403억원)

전력선통신 상용화 여부에 업계관심 고조

오는 7월께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PLC 상용화와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연구원과 산업자원부는 7월부터 제주도에서 200세대를 대상으로 PLC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요희 PLC포럼 회장은 “시범사업지로 서울과 제주를 검토한 끝에 제주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예산은 8억원 정도로 관련 공사가 3~4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젤라인이 서울 서초동에 데모하우스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법령 문제 등으로 소규모에 그치다가 이번에 정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0세대 규모의 멀티유저로 PLC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4월 중순께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LC는 종래 전기선을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플러그만 연결하면 바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가전제품 홈네트워킹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저속 PLC의 경우 상용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고속 부문은 주파수 완화 문

제, 현장 테스트의 어려움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450k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PLC 주파수 규제에 대한 검토가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고 연말이면 주파수 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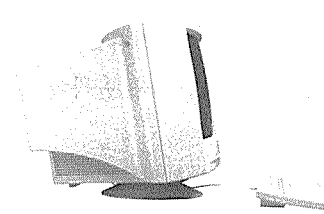
국산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 시행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기업의 불신을 해소하고 해당 부품,소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
해 주는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위하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부품,소재 신
뢰성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뢰성 보험은 자동차, 전자, 기계부품 등 업종별 18개 신뢰성 평가센터(공인시험기관)의 철저한
품질평가를 거쳐 합격한 부품,소재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수요기업이 국산부품, 소재를 안심하
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뢰성보험에 가입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해당 부품,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제품보증,
회수비용)는 물론이고 확대손해(배상책임, 기업휴지)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